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님 모두말씀

안녕하십니까,
국민경제자문회의의 부의장 김성식입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의는 헌법 제93조에 따라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경제정책 자문기구입니다.

우선, 자문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정책으로 연결해 주신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과 실무진께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아울러 오늘 뜻깊은 간담회를 준비해 주신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님,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해 주신
중소·벤처기업 및 혁신금융금융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와 국민경제자문회의의가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자문의견을 가다듬어 갈 때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탈 관계자들의 현장 목소리로부터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1년이 향후 10년, 20년을 결정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기하급수적 성장 잠재력을 지닌 벤처·혁신기업에 대한 적극적 투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자본이 벤처생태계 지원에 사용되도록 방향을 바꾸고 새로운 핵심 경제주체인 벤처·스타트업의 투자 병목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대표기업에 해당하는 셀트리온, 네이버 같은 기업도 처음부터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당장 수익은 나지 않고 연구개발비는 막대하게 들어가면서 창업주가 사채로 자금을 조달하는 등 장기간 재무적 어려움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가 20여년 전, 수백억 규모의 스케일업 투자가 이루어진 것이 오늘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IT·바이오 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오늘 열매를 잘 맺고 있는 나무뿐만 아니라 10년 후, 20년 후 열매를 잘 맺을 묘목을 찾아내고 잘 가꾸어야 합니다.

그러나 20년 후 대한민국 대표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스케일업 투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유망한 벤처·혁신 기업이 Death Valley를 건너지 못해 경쟁력을 잃거나 해외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벤처·혁신기업 성장의 죽음의 계곡을 국민성장펀드가 메꾸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메꿈에 그치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혁신벤처기업과 국민경제 도약을 위한 귀중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총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중에 50조원을 미래 주역이 될 벤처·혁신 기업에 투자한다는 명확한 원칙을 세우고 전략적 대형 스케일업 투자가 가능한 직접투자 규모는 투자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벤처·정책금융과 투자규모, 투자결정 과정, 투자조건 등도 민간 모험자본의 선구안을 중심으로 과감하게 달라져야 합니다.

또한, 안정성 위주의 정책금융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주무부처, 정책금융기관, 금융회사 모두가 높은 위험과 개별 투자의 손실을 감수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와 면책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금융위원회가 이 과제를 선도할 것입니다.

미래 혁신경제의 엔진을 키우는
국민성장펀드를 만들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간담회의 논의는 성장펀드 다운 국민성장펀드,
혁신성으로 승부하는 벤처·혁신기업,
모험자본 역할을 제대로 하는 벤처금융으로
발전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국민경제자문회의도 더욱 협력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